

학습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은 지역을 바꾼다

- 평생학습의 미래와 가치의 변화를 위하여 -



김광식
충청남도평생교육
진흥원장

Dialogue in the Dark, 혁신의 평생학습

‘암흑.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웅성거리는 소리들. 지팡이에 전해오는 바닥의 촉감이 손으로 느껴져 전신으로 전해진다. 지금 나는 그 어딘가에 서 있는 것 같다. 거리에, 바다에, 극장에, 시장에, 불안과 긴장, 호기심. 곤두 선 감각이 내게 신호를 보낸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느닷없이 들이닥친 생경함이 두렵기까지 하다. 이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에 안도하며 앞 사람의 흔적을 찾아, 발걸음을 옮길 뿐이다...’

Dialogue in the Dark(어둠 속의 대화)는 1988년 독일에서 시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5~6명으로 그룹을 구성하고 시각장애인의 가이드에 따라 암흑 속에서 70분 가까이 시각장애체험을 한다.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 거리를 걷게 하는 것이 전부인 이 간단한 프로그램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고, 지금은 전 세계 18개의 도시에서 상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Dialogue in the Dark는 기업 운영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직업을 제공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거리를 줄이며, 사회에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인드를 확산시키는 혁신적 사고에 기반 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인적 학습을 넘어 사회적 학습으로

한국 사회에서 평생학습은 10년간 급속도로 진전되어 왔다. 다양한 개인의 취미나 여가 활용, 노동 시장의 불안, 국가주도의 평생교육 진흥 정책 등이 맞물려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상승일로에 있고, 그에 걸맞은 다양한 성과들도 집적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참여분야가 문화예술교육이나 직업능력교육으로 집중 또는 한정되면서 단순한 개인적 학습에서 머무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평생학습이 개인적 학습에서 사회적 참여 학습으로 질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강하게 역설해준다. 평생학습의 핵심은 성취와 변화이고,

궁극적 지향점은 행복이며, 그 도구는 재미이다. 한글을 모르던 어르신들이 문해 교육을 통해 얻는 성취와 변화의 감동은 눈물겹다. 꼭 하고 싶었으나 못했던 일을 하는 것이니 재미와 열정이 따를 수밖에 없고, 재미와 열정이 따르니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개인적 학습의 결과라면, 이제는 사회적 학습으로의 진화가 필요하다.

사회적 학습이란 관계 속에서의 학습이다.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데 필요한 일들, 지역사회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일들, 협동을 통해 사회적망을 확산시키는 일들, 공공적 제도와 법의 영역에서 불합리한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집단적 지성의 일들, 나아가 희망을 주는 미래가치를 예측하고 이를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일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어르신들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용을 촉진시키는 일들을 통해 변화와 행복을 느끼는 과정이 사회적 학습의 역할일 것이다.

이제, 평생학습에서도 혁신적 사고를 통한 창조적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Dialogue in the Dark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회적 약자를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자세의 변화와 함께 그들과의 관계망을 통해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고 가치의 변화를 유도해낸다는 점이다. 혁신과 창조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모든 공공교육의 가치를 경쟁이라는 획일화된 잣대로 재단하는 한 창조와 혁신을 통한 사회적 학습의 길은 험난할 것이다. 협동과 다양성이 숨 쉴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공공의 차원에서 준비하는 일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머리와 가슴을 온통 경쟁의 가치에 지배당한

많은 이들에게 갑자기 협동과 다양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일과 뭐가 다르겠는가? 가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학습 과정이 우선시해야 될 때이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평생학습의 출발

학습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은 지역을 바꾼다. 평생학습에서 '참여'는 '스스로'라는 자발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학습이 단지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개인만의 영역이 아니라 같이 공유해야 할 타인과 이웃, 그리고 그들이 함께 살아 숨 쉬는 지역사회, 마을, 공동체가 있다는 철학적 가치의 내면화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우리의 평생학습은 상위단위에서 하위단위로 연계되는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결국 지나친 성과주의에 집착하거나 다른 한편으로 갈등과 배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자발적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 내주는 아래로부터(bottom-up)의 운영 방식이 절실하다.

여기에서 가장 의미 있는 파트너십은 사회적 학습동아리에 대한 발굴, 육성, 지원이다. 사회적 학습동아리는 주민주도형 평생학습의 실천적 교두보로서 평생학습의 미래를 담보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사회적 학습동아리에 대한 관심이야말로 '느닷없이 들이닥친 생경함'을 '안도하며 앞 사람의 흔적을 찾는' 평생학습의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세계인의 눈높이에 맞춘 관광 개발해야 외국인관광객 2,000만 명 시대 맞으려면



권오덕
충남발전연구원 이사,
前. 대전일보주필

2012년 국내 외국인 관광객이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연말까지 1,100만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2011년의 세계 25위보다 한두 계단 앞설 것이 확실하다. 3~4년 전의 42위에 비한다면 엄청난 도약이 아닐 수 없다. 세계 관광대국(2011년 통계)이라면 프랑스(8,141만 명), 미국(6,271만 명), 중국(5,758만 명)이다. 그 뒤를 이어 스페인, 이탈리아, 터키, 영국, 독일,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이 차지하고 있다.

관광대국 중의 대국인 프랑스는 문화자산이 풍부하고 다양하다. 문화인프라도 어느 나라보다 잘 돼 있다. 그 중심에는 파리가 있지만 남프랑스의 볼거리도 많다. 교통도 편리하고 먹거리와 숙박시설도 훌륭하다. 모든 관광자원이 갖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거의 유럽 전체와 맞먹는 큰 땅덩어리와 함께 주(洲)마다 다른 문화의 다양성, 거미줄처럼 뻗쳐 있는 교통망으로 해마다 세계인을 끌고 있다.

중국 역시 미국과 비슷한 크기의 땅 넓이에 5000년 문화유적들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전 세계인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특히 한국·일본 등 인접국을 대상으로 한 엽기공세가 먹히고 있다. 스페인, 이탈리아, 터키는 훌륭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한 마디로 '조상 팔아먹고 사는 나라'라면 지나친 말일까. 그러나 우리보다 앞선 홍콩(13위)이나 싱가포르를 보면 얼른 수궁이 가지 않는다.

황당한 세계 관광명소 우리도 他山之石 삼아야

그들은 순전히 인공적으로 만든 관광명소가 세계인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자연자원 세계 103위가 말해주듯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 더구나 관광개발성이 106위, 손님 친절도는 125위로 하위권이다.

GDP서 차지하는 관광비중도 불과 5.6%로 프랑스의 20%에 많이 뒤진다. 있는 자원도 제대로 활용 못하는 우리다. 서양은 별 것 아닌 것도 이야기를 만들어 세계인들에 팔아먹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세계에는 썰렁 황당한 관광명소들이 즐비하다. 대표적인 몇 개를 들어보면 독일 라인강의 로렐라이 언덕과 덴마크 코펜하겐의 인어공주상, 벨기에 브뤼셀의 오줌싸개 동상 등은 실제로 가보면 황당하기 그지없지만 관광객이 넘친다. 로렐라이는 라인강을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 나지막한 언덕이 전부다. 기념동상도 잘 안 보이고 배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노래(하이네 시에 질허가 작곡함)가 전부다.

인어공주상도 보잘 것 없기는 마찬가지. 안텔센의 동화로 유명세를 탄 실물크기의 이 동상은 세워진지 100년 동안 수많은 관광객들의 촬영장소로 각광받아왔다. 엄청난 외화벌이를 해줬지만 페인트가 칠해지는 등 수난도 많이 겪었다. 오줌싸개 동상 역시 실제로 보면 황당하고 썰렁하다. 발가벗은 사내아이가 고추를 내놓고 힘차게 소변 보는 것뿐이다. 이상 예를 든 것은 전설이나 일화가 뒤받쳐주는 공통점이 있다.

서울중심에서 지방중심으로 관광정책 전환해야

우리는 왜 못하는가. 비근한 예로 부여 낙화암은 좋은 스토리를 갖고 있다. 백제가 망할 때 낙화암에 떨어져 죽은 3천 공녀는 얼마나 좋은 소재인가. 그런데 이를 알고 오는 외국관광객은 거의 없다. 알리지 않아서 그렇다. 반대로 널리 알

려진 사례인 보령의 머드축제는 해마다 많은 외국인들이 찾고 있다. 전남 영암의 F1코리아그랑프리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뿌린 만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최근 크게 성장한 것은 '한국방문의 해 (2011-2012년)'를 지정해 외국인 관광객유치에 힘쓴 결과다. 또 K팝과 드라마 등 한류가 한국방문을 자극한 측면도 크다. 중국과 일본방문객의 급증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중국과 일본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세계인의 눈높이에 맞춘 관광개발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내국인이 먼저 찾아 입맛에 맞아야 한다. 보령머드축제와 남이섬이 대표적인 예다.

또 서울중심에서 지방으로, 경관위주에서 체험위주, 기타 의료관광과 MICE(국제회의·전시) 등 융합상품으로 전환해야 한다. DMZ를 관광 상품화해야 하고 일본 중국과 연계한 관광 상품도 나와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관광 상품도 개발하면 좋겠다. 그리하여 현재 40%선인 재방문율을 일본과 비슷한 60%선까지 올린다면 2,000만 명 이상이 한국을 찾을 날은 머지않았다.

양극화, 그리고 거버넌스



김대길
한국해비타트 천안/
아산지회 사무국장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법적·정치적 평등권을 갖는다는 의미로써 지위고하를 떠나 위법에 대한 상응한 처벌과 함께 선거에서 유권자로서 1인 1표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권은 법과 정치의 범주에만 국한될 뿐, 그 밖의 영역에는 평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

특히 경제영역이 그러하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누구나 이윤의 극대화를 꾀하며 영리 추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자유롭게 재산을 소유·증식할 수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계급과 차이가 파생되며, 무한경쟁 하의 특정 계층의 자본집중화로 인해 심화된 양극화(polarization)의 문제는 우리 사회를 비롯한 많은 국가의 심각한 사회·경제문제의 원인으로 대두되었다.

최근, 대선 정국을 맞은 한국사회는 사회통합과 경제민주화 등, 각 후보 진영이 쏟아내는 다양한 정책비전과 어젠더들의 혼전 양상이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진보와 보수 간의 첨예한 이념 대립이 상존한다. 김대중 정부 출범 전인 지난 1996년, 56%이던 중산층 비율은 노무현 정부 4년차인 2006년에는 44%로 감소했고 빈곤층은 11%에서 20%, 고소득층은 20%에서 25%로 증가했다.

수치대로라면 친 서민 정부를 자처한 진보정권인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중산층은 몰락하고, 서민의 삶은 궁핍해져 계층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고 볼 수 있다. 그 뒤를 이어 들어선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효과는 대기업과 일부 부유층의 부부의 증가는 중소기업과 소비자, 서민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경기진작

으로 이어져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이론이다.

트리클 다운과 함께 선택과 집중, 불균형 성장 전략, 비교우위 이론 등은 격차를 줄이는 것에 무심하거나, 격차를 방임 또는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저하, 국제경쟁력 약화 등의 위기는 앞으로 장기화될 공산이 크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한국 경제 전반에 걸친 심화된 양극화를 지적한다. 국내 일자리의 99%를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데, 양극화는 내수산업을 위축시킴으로써 내수산업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잠식하게 된다. 중소기업의 부실은 곧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지고, 이는 또 다시 내수 부진을 초래하며 성장 기반을 잠식함으로써 양극화가 심화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궁극적으로 대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할 기반이 잠식당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 심화된 양극화는 경제에 심각한 폐단을 낳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의 부재와 이로 인한 사회적 통합 부재로 인해 사회 불안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극화의 문제, 계층 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상호 통합을 이루는 해법은 무엇일까?

시장의 자기 조절 능력에 대한 맹신에서 비롯된 일종의 반사회적 이데올로기인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의 공공성은 거대 자본의 탐욕으로 인해 파괴되었고, 국가권력의 자본 전제력도 약화되었다.

이런 실정에서 인간과 지구적 자본의 탐욕을 제한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강화와 성숙을 통한 거버넌스가 시대적 과제로 요청된다.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은 19세기 공리주의에서 비롯된 다수결의 원칙이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므로 질적인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며 가급적 다수의 뜻대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다. 벤담이 말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도 바로 이런 의미이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을 도외시키고 다수라는 양적인 기준만을 앞세우는 것이 과연 최선일지 의문이다.

인과적 순서를 떠나 성숙된 시민의식을 통한 성장적 합의체제의 거버넌스는 기존의 정치·경제·사회체제에 대한 변화의 바람과 도전으로서 인간의 삶의 의미에 대한 재발견과 새로운 인간욕구의 분출에 따른 저항으로 규정된다. 해계모니와 기득권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구조화된 제도 하에서 법과 원칙이라는 틀 속에 억압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평등을 회복하는 일은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이상과 정의의 실현이다. 이제는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가 강화된 힘의 바탕 위에서 쓸모없는 힘겨루기로 비용과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사회

의사결정 방식을 제도화하여 정부와 기업, 시민 사회가 상생하고 견제와 협력이 조화를 이루는 긴장된 균형 또는 생산적 긴장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겠다.

이제 세계화의 물결은 경제 지상주의와 시장 중심의 관계를 뛰어넘어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사회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사회 각 섹터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협치의 관계 즉,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기업은 시민사회로부터의 정당성 부여가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중대한 자원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시민 사회 조직은 시민사회를 제대로 대표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개혁이 요구된다.

경제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돈과 재화의 흐름(flow)이다. 마찬가지로 사회의 계급구조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어야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른다. 세상에는 부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으며 건강한 자와 병약한 자가 있다. 지식의 높낮이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하구조의 양극화는 흐름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강한 자가 병약한 자를, 많이 배운 자가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한 자를 돕는 흐름의 미학은 그 어떤 제도적 방안보다도 양극화를 극복하고 진정한 평등의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이상적인 해법으로 여겨진다.

모두가 똑같아 아무런 나눔과 소통이 없는 사회란 너무 밋밋하지 않을까? 노블리스 오블리제 noblesse oblige라는 시대정신이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간에도 흐름과 소통이 전제되어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의 벽을 허물고 상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 서로의 공과功過를 면밀히 따져 견제와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충용은 누구에게나 참으로 힘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각자가 처한 환경과 이해관계에 따라 한쪽으로 치우 치는 경향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충용을 위해서는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거버넌스를 통한 공공의 행복,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상호 간의 올바른 이해와 존중,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협력이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할 수 있겠다.